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⑳ 무분별지(無分別智)

어떤 스님이 임제에게 물었다.

"부처와 마군이 어떤 것입니까?"

"그대가 한 생각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마군이며, 그대가 만약 모든 법이 생겨남이 없고, 마음은 허깨비 같아서, 더 이상 하나의 티끌도 하나의 법도 없어서 곳곳이 청정하다는 것을 통달하면 이것이 부처이다. 그러나 부처와 마군은 더럽고 깨끗한 상대적인 두 경계에 지나지 않는다. 산승의 관점에서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다. 이것을 알면 그만이다. 오랜 세월 수행할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서 언제나 특별한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설사 어떤 법이 이보다 나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꿈과 같고 허깨비와 같다고 말한다' 했으니 산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대목에서 한 말을 굳이 보충 설명한다면 깨달음을 얻은 경계는 무(無)의 경계다. 유(有)의 경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말도 설명을 위한 표현일 뿐 깨달으면 사실 아무 경계가 없는 것이다. 자다가 꿈을 꿀 때는 몽경(夢境)이 있지만 깨고 보면 몽경은 모두 사라져 아무 것도 없는 것과 같다. 이래서 '본래 아무 것도 없다[本來無一物]' 는 말이 나온 것이다.

임제가 어느 스님으로부터 "어떤 것이 부처와 마군인가?"라고 질문을 받고 답해 주면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말한다. 교에서 말하는 아공(我空), 법공(法空)을 증득한 절대무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말이다. 부처는 깨달은 성인이고 마군은 수행을 방해하는 무리다. 깨달음을 증득한 분상에서는 수행할 것이 없다. 수행할 것이 없을 때는 수행을 방해할 것도 없는 것이다. 임제는 또 다른 장(章)에서 "도(道)도 닦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도를 닦는다고 하면 온갖 그릇된 소견만 다투어 일어날 뿐(若人修道道不行 萬般邪見競頭生)"이라고 했다. 이는 곧 분별하는 생각이 붙으면 도를 등지게 된다는 말인데 이 장에서도 법이란 법이 특별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을 뜻한다. 〈금강경〉의 '정해진 법이 없다(無有定法)' 는 말과 같다.

또 법은 본래 없던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있던 법이 어느 때에 가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느 때고 그대로이고, 있고 없고를 떠나 아무 일이 없는 것이다.

흔히 쓰는 말에 '능소(能所)가 끊어진다' 는 말이 있다. 능(能)은 인식하는 주체이고 소(所)는 인식 되어지는 대상이다. 다시 말해 주관과 객관의 상대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능소(能所)가 끊어진 주객(主客)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난 지혜를 무분별지(無分別智)라 한다. 깨닫게 되면 이 무분별지를 얻게 된다고 한다. 분별이 없는 경지이므로 가타부타할 것이 없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수행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한 임제의 말이 이러한 차원에서 나온 말이다.

간화선의 한 교본(敎本)으로 알려진 〈몽산법어〉에서도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이 바로 생사(生死)다.(念起念滅卽生死)"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은 분별심 속에 생사가 있다는 말이다. 한 생각 끊어지면 생사가 없으므로 생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생멸심(生滅心)이다. 이 생멸심을 벗어나는 것이 도에 들어가는 것이라 했다.

"밖으로 모든 반연(攀緣)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墻壁)과 같아야만 도(道)에 들어갈 수 있다.(外息諸緣 內心無喘 心如墻壁 可以入道)"

달마가 혜가에서 도에 들어가는 방편을 일러준 말이다.

주로 동양에서 말해온 도(道)와 서양에서 말해온 철학의 차이를 무분별지와 분별지로 구분하여 말하기도 한다. 또 노자 〈도덕경〉에도 학문과 도를 비교해 말하면서 학문은 쌓아 늘려가는 것이지만 도는 비워 덜어가는 것이라 하였다. 분별은 늘리는 것이고 무분별은 분별이 없는 것이니까 텅 비어 아무것도 들어있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3독 3취정계로, 육적 6바라밀로



세상 속 경전읽기

⑳ 삼독육적(三毒六賊)

붓다께서 '3가섭(三迦葉)이 이끄는 천 명의 배화교도' 를 개종시키고 설법한 〈연소경[燃燒經; 북전(北傳)대장경의 시현경(示現經)]〉이 핵심경전 세 가지 중 하나임을 앞에 언급하였다.

〈연소경〉에서 설하기를 "근·경·식·촉·수[根·境·識·觸·受; 6근·6경·6식의 18계(界) 및 접촉·접촉의 느낌]가 탐진치(貪瞋痴)의 삼독(三毒)으로 불타고 있고, 생노병사우비고뇌(生老病死憂悲苦惱)로 불타고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근경식촉수(根境識觸受)를 싫어하고 멀리해 18계와 촉·수(觸·受)가 사라지고 해탈하여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내용이 고스란히 중국 선종에도 살아있다. 파상론에서는 이를 어떻게 묘사하였는지 살펴보자. 달마대사의 저서 모음으로 알려진 〈소실육문(少室六門)〉의 제2문 파상론(破相論)은 신수(神秀, ?~706)대사가 속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미 언급하였다.

파상론에서 "무명심(無明心) 곧 3독6적(三毒六賊)으로 인해 생사고해에 윤회하니, 3독을 멎어 3취정계(三聚淨戒)로 바꾸고, 6적(六賊)을 6바라밀(六波羅蜜)로 바꾸면 고통을 멈춘다"고 했다.

"(제자가) 여쭙기를,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부처의 성품과 모든 공덕이 깨달음을 근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명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달마대사) 말씀하시기를, '무명심에는 비록 수많은 번뇌와 악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탐진치 3독심을 뿌리로 한다.' " [問。上說眞如佛性一切功德因覺爲根。未審 無明之心以何爲根。答。無明之心。雖有八萬四千煩惱情欲及恒河沙衆惡。皆因三毒。以爲根本。其三毒者。卽貪嗔癡是也。] 〈破相論 T2009_.48.0367a15-18〉

삼독심은 스스로 그 안에 모든 악을 능히 지니고 있으니, 마치 큰 나무에서 나무의 뿌리는 하나이나 그 가지와 잎이 무수히 많은 것과 같다. (아니) 저 삼독심의 각각의 뿌리에서 모든 악한 일이 생성됨은 오히려 나무뿌리에서 가지와 잎이 생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 나무의 비유로도 모자랄 지경이다. 큰 나무의 한 뿌리에서 나온 잎과 가지의 수보다, 삼독심 각각에서 나오는 악한 일의 종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삼독심이 여섯 감각기관[6근]을 드나들며 여섯 알음알이[6식]를 내어 감각대상[6경]에 탐착해서 능히 모든 악행을 지어내니, 참나의 몸을 가리는 여섯 알음알이[六識]는 곧 여섯 도둑[六賊]이다.

"이와 같은 삼독심의 뿌리(본체)에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눈,귀,코,혀,몸,생각)과 이에 따른 여섯 가지 알음알이(안식,이식,비식,설식,신식,의식) 곧 여섯 도둑이 나온다. 여섯 알음알이가 여섯 감각기관을 드나들며 모든 대상에 탐착하여 능히 악행을 지어 참나의 몸을 가리므로 여섯 도둑[6적(六賊)]이라 한다." [如是三毒心。於本體中。應現六根。亦名六賊。卽六識也。由此六識出入諸根。貪著萬境。能成惡業。障眞如體。故名六賊。] 〈破相論 T2009_.48.0367a21-24〉

〈연소경〉에서 '삼독심으로 불타는 18계' 가 〈파상론〉에서는 '삼독심에서 6적이 나온다' 고 하였고, '6근 또는 6식이 6경에 탐착하는 것' 을 '진여체(眞如體)를 장애하는 6적(六賊)' 으로 묘사하였다.

모든 중생이 이러한 '3독 6적' 으로 인해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생사의 바다에 빠져 6도윤회를 하며, 모든 고통을 받는다. 이는 마치 상류의 작은 샘물이 끊임없이 넘쳐흘러 양자강과 황하강을 이루어 만 리를 물결치며 흘러감과 같다.

만약 근원의 샘을 끊으면 모든 흐름이 멈추듯, 해탈을 원하면 3독심을 세 가지 깨끗한 계율[三聚淨戒]로 바꾸고, 여섯 도둑을 6바라밀로 바꾸면 자연히 모든 고통의 바다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⑯ 닦음의 길 6

'육식', 파계인가?

출가자가 육식을 하면 계율을 어기는 것일까? 이는 오래 전부터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던 것이었다. 육식은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불살생계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대부분 육식을 하지 않는다. 요즘은 채식 위주의 사찰음식이 건강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비건(vegan)이라고 해서 고기와 생선은 물론 우유나 달걀 등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모든 식품을 먹지 않는 철저한 채식주의자도 관심을 끌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육식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 같다. 그렇다면 불교의 역사에서 고기는 금지된 음식이었을까?

붓다가 활동하던 당시 육식이 계율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고기는 먹어도 되는 음식이었다. 그 조건이란 동물을 잡는 모습을 눈으로 보지 않고(不見), 나를 위해 잡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며(不聞), 나를 위해 잡았다고 의심되지 않는(不疑) 음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삼종정육(三種淨肉)이라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청정한 음식이면 먹어도 좋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붓다가 육식을 허용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당시 출가한 사문에게 걸식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었지만 하심(下心), 즉 자신을 낮추는 중요한 수행이었다. 얻어먹는 사람이 어떻게 우쭐하는 마음을 낼 수 있겠는가. 상대가 주는 음식이 고기인지 아닌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가리지 않고 그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붓다에게 육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던 인물이 있었다. 바로 붓다의 사촌인 데바닷타였다. 그는 평생을 붓다에 대한 콤플렉스로 고통 받으며 살아온 인물이다. 그는 세 번에 걸쳐 붓다를 죽이려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비참한 최후를 맞기도 하였다. 그가 바로 붓다에게 육식을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창한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한때 승단이 분열되기도 했지만, 붓다는 데바닷타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수행자 각자의 판단에 따라 보고(見) 듣고(聞) 의심스러운(疑) 고기가 아니라면 먹어도 좋다고 결정했던 것이다.

이런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은 대승불교에 이르러서였다. 인도의 대중종교로 성장한 힌두교에서는 육식보다는 채식을 선호하였다. 특히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에 철저한 바라문들은 고기를 취급하는 천민들과의 접촉을 기피하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천한 신분과 부딪치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는 육식을 금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불교 내적으로도 육식을 금지하는 논리가 필요했다. 이때 활용된 근거가 불살생계는 물론이고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 는 〈열반경〉의 가르침이었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비의 마음을 지녀야 하는데, 어떻게 살생을 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범망경〉의 48경계(輕戒) 가운데 세 번째 조항에서도 육식은 자비의 종자를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대승에서는 육식을 금하는 분위기지만, 남방에서는 초기불교의 전통에 따라 육식을 허용하고 있다. 대승에서도 육식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수행자 개인에 따른 편차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육식의 허용 여부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현상이지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육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동물만 생명이 아니라 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채식 역시 살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생명을 해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다.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대중공양 전에 합송하는 것처럼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으니 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고추구 12E 인지구 26E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